

강진 불금불파 9월 5일 개장한다

청년창업존·추석맞이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가득

강진군이 문화·관광·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인 강진 불금불파를 오는 5일 재개장한다.

올해 하반기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이벤트를 한층 강화했다. 재개장 당일 행사장 내 2만 원 이상 영수증을 제시하면 '꽉 없는 물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강진사랑상품권과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 현장에서 펼쳐지는 즉석 퀴즈와 게임 이벤트도 마련돼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한다.

추석맞이 특별 행사도 준비됐다. 10월에는 고향을 찾은 가족 대상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10월 4일에는 주민이 함께하는 추석맞이 노래자랑이 열려 군민과 귀향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든다.

하반기에도 하멜양조장과 연계해 방문객이 행사장 내 2만 원 이상 영수증 제시하면 하멜촌맥주 한 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병영 장터문화화랑, 할머니장터, 플라마켓이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한다.

상설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불금불파 텐트촌은 격주(둘째·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청년창업존 팝업스토어에서는 청년창업가들의 제품 홍보와 판매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업사이클링 공예체험을 통해 환경과 예술을 접목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병영상인 홍보관은 옛날 상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상권 홍보의 장이 된다.

여기에 불금불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EDM DJ 공연과 인기 가수 무대는 더

욱 화려하고 열정적인 무대로 준비돼, 축제의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불금불파는 지역 상권과 청년 창업을 연결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라며 "이번 재개장을 통해 강진의 볼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많은 분들이 강진을 방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고흥군, 오는 9월 8일 개기월식 특별 관측회 운영

2~3년에 한 번 관측 기회...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진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9월 8일 새벽, 특별한 천문 현상인 개기월식을 맞아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 관측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기월식은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위치하면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으로, 같은 지역에서는 통상 2~3년에 한번 정도 관측 기회가 생긴다.

거대한 광원인 태양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는 진한 부분과 옅은 부분으로 나뉜다. 달이 옅은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을 '반영월식', 진한 본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월식'과 '개기월식'이라

고 한다. 반영월식은 달이 살짝 어두워지는 정도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천문과학관에서는 부분월식과 개기월식 과정만 관측한다.

이번 개기월식은 7일 저녁 6시 40분경 달이 뜬 뒤, 8일 새벽 1시 30분경 달 한쪽이 어두워지는 부분월식이 시작된다. 이어 2시 30분에는 달 전체가 어두워지는 개기월식이 진행되며, 3시 50분경부터 달이 서서히 밝아지고 5시경에는 다시 원래의 밝은 달이 보이게 된다. 천문과학관 관계자는 "9월 새벽 관측은 장시간 야외에서 진행되므로 여분



의 긴 옷을 준비하고, 다음날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해 달라"며 "날씨가 흐리면 관측이 불가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시, 2025년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 접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시민에 귀감이 되는 사람 추천받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을 빛낸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를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민의 상 추천 대상자는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및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공고일 현재까지 순천시에 3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이다.

다만, 시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에 등 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선정할 수 있다.

수상자 선정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

원회에서 심사하고, 시장이 최종 한 명을 선정하여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 시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시민의 본보기가 되어온 분들이 꼭 추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대상자 추천 방법과 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순천시 자치행정과(061-749-562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카메라 뉴스



담양군,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개최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범죄예방 수칙에 대한 직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경찰청, 수사연수원, 반부패 청렴 강사로 활동 중인 전라남도경찰청 경무과 임옥섭 경위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생생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담양 구현에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무안군,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초급 1단계 개강

무안군(군수 김산)은 8월 31일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21명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1단계 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기초반(0단계)에 이어 개강한 이번 초급 1단계 과정은 매주 일요일 진행되며, 11월 말까지 총 100시간 동안 체계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제공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숙련 기능인력 비자 전환 시 한국어 능력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무안군은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평일에는 교육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와 교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함평군, 악취 제로(Zero) 청정 지역 만든다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축산악취 저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의 자율적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축산농장 현장점검에 나섰다.

함평군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마을과 인접하거나 악취 민원이 발생한 축산농가 21곳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악취개선 공모사업에서 1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6개 농가에 물거름 순환 시스템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작동 여부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및 악취 발생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점검과 함께 축산분뇨 관리 방안에 대한 지도를 병행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